

# 지난해 취업선원 총 60,543명, 한국인 선원은 매년 감소 추세

- 해양수산부, 「2026 한국선원통계연보」 발간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한국인 선원의 취업 현황,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, 선원 임금 수준 등이 담긴 '2026 한국선원통계연보'를 발간한다고 밝혔다.

202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0,543명이며, 이 중 한국인 선원은 27,372명으로 전년 대비 1,359명이 감소하였다. 외국인 선원은 전년 대비 650명 증가한 33,171명으로, 한국인 선원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, 외국인 선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\* 한국인 선원 / 외국인 선원(단위: %) : ('21) 54.3/45.7 → ('22) 53.0/47.0 → ('23) 50.1/49.9 → ('24) 47.0/53.0 → ('25) 45.2/54.8

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655만 원\*으로 전년(624만 원)보다 31만 원(5.0%)이 증가했으며, 10년 전인 2015년(442만 원)에 비해서는 48.2% 상승하였다.

\* 월별 기본임금(통상임금), 시간 외 수당(생산수당), 상여금,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

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 미만은 25.2%(6,922명), 40~50대는 30.9%(8,448명), 60세 이상은 43.9%(12,002명)로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지만, 최근 3년간 40대 미만 청년 선원의 비중\*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인력 안전성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.

\* 40대 미만 선원 비중 : ('23) 22.1 → ('24) 24.4 → ('25) 25.2%

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"2023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청년 선원의 비중은 늘었지만, 여전히 선원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."라며, "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「한국선원통계연보」는 국가통계포털(kosis.kr)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(www.koswec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정로 (051-77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재 (051-773-5745)